韓国電子工業振興会
1988 4 . 21

電子産業의 원貨 切上 影響과 対策

編輯者 註 : 今年 들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원貨切上에 대하여 全産業界에서는 그 対策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제외한 NICs와 日本의 완만한 切上에 비한다면 그 切上幅은 극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本稿는 本会의 主催로 1988년 4월 21일 半島유스호스텔 Convention Room에서 열린 「電子産業 원貨 切上 影響과 対策 討論会」의 発言 内容을 要約·整理한 것이다.

日 時 : 1988. 4 . 21(08 : 00~11 : 00)

場 所 : 半島 유스호스텔 Convention Room (서울 강남 所在)

討論者 : 曹廣鎬 常務(金星社)
林洪圭 社長(宝星和林)
呉相奉 博士(産業研究院)
金昌憲 常務(三星電子)
朴基漸 社長(又 榮)
俞城在 博士(中央大, 司会)
朴正灝 副会長(韓国마벨)

소속 가나다順

曹廣鎬 常務理事

저희 金星社에서도 昨年 末에 수립한 사업계획을 보면 원貨 切上은 730원대로 円貨는 115円 내지 120円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生産에 대한 輸出 비중이 70%에 이르러 今年의 20억弗 수출목표를 감안할 때 切上率이 10%일 경우 600억원, 15%일 경우에는 850억원의 換差損을 보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임금인상은 제외한 경우이기 때문에 임금인상까지 포함한다면 실질적인 원貨 切上의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電子製品의 경우 5% 하향 추세의 単価 동향과 EC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貿易規制, 중공을 포함한 後発開途国의 추격으로 인한 価格競争 등으로 輸出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実情입니다. 위와 같은 전반적인 문제의 대책으로서 先物換制度 확대, 現地通貨로의 転換, 製品 및 技術의 開発을 전제로 한 輸出入 다변화, 高附加価値와 高品質 실현으로 비가격 경쟁력 強化, 現地生産 확대, VE 등을 통한 체계적·지속적인 原価節減 등을 들 수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金利 引下를 위시하여 통화 증발에 대한 규제 조치 완화, 제2금융권의 실질 차입금 코스트 인하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林洪圭 社長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貨 切上의 幅이나 速度를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中小企業으로서는 속수무책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現実 여건에 대한 対策을 강구한다면 短期的으로 外国 原資材 구입의 어려움을 제도상으로 극복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며 결재 통화도 現地通貨로의 전환을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中長期的으로는 各業体에서는 成長보다는 収益性과 内実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自動化 施設 투자에 있어서는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큰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읍니다. 특히 저희 業体에서는 価格引上보다는 新製品開発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中小企業 자체의 自救策과 制度와는 상충되는 것이 많아 政府 차원의 中小企業 支援 제도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換率 변동의 事前予示制度의 확립과 준조세 부담률의 감소, 소액수출지원제도의 확대, 中小企業 지원자금의 차등제도, 관세환급제도의 개선 등을 中小企業에 대한 지원의 측면에서 검토,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政策的 支援과 業界의 対応이 조화를 이루어 原価節減과 換差損의 極小化에 주력하여 원貨 切上에 対備하여야 하겠읍니다.

吳相奉 博士

우선 원貨 切上의 영향과 企業 차원에서의 対策, 그리고 政府의 지원 제도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급속한 원貨 切上의 진행으로 対美 수출비중이 크고 日本과 경쟁상태에 있는 PC 등의 품목에서 타격을 입을 것이고 低級品을 중심으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後発開途国의 추격과 内需市場의 빈약성으로 더욱 심각한 영향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응책으로서 먼저 企業 측면을 살펴보면 원貨 切上과 市場 개방압력 등의 통상마찰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아 技術開発을 전제로 高附加価値를 실현함과 동시에 産業用機器 및 部品의 技術集約的 品目 집중 육성을 이루어야 하며 기업간 協力体制를 통한 비용절감 노력과 内需市場 비중을 提高시켜야 하며 対美 수출시장에서 탈피하고 주요 부품국산화를 통해 対日 輸入先의 다변화 실현과 生産自動化를 통한 生産性向上 등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또한 政府에서는 換率 변동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율변동 사전예시제의 확립, 수입원자재의 差益을 기업으로의 환원, 중소기업의 채산성 유지 방안 지원 강구와 한계기업의 業種 転換 지원체제 확립 등의 対策을 樹立하여야 할 것입니다.

金昌憲 常務理事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貨 切上 속도를 보면 극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먼저 저희 三星電子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87년 10월에 경영계획 수립시 今年의 원貨 切上을 725원대로 예상하였지만 1/4분기를 지나고서 700원대로의 修正이 불가피하였읍니다.

또한 輸出에서의 損益分岐点은 745원으로 이미 採算性을 상실한 일부 품목은 断種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貨 切上의 영향으로는 670원으로 切上될 경우 輸出이 40% 감소하고 660원일 경우 60%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채산성 악화뿐만 아니라 売出에도 타격이 예상되며 심할 경우에는 工場 가동에 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원貨 切上의 対策으로는 우선적으로 VI와 部品国産化 등을 통한 原価節減이 선행되어야 하며 製品의 고급화를 통한輸出価格 인상, 그리고 日本을 탈피하여 欧·美 지향적인 부품수입선의 다변화를 이루어야 하겠읍니다.

또 美国에 의존하고 있는 수출지역의 다변화도 중요하고 現地生産 제도도 확대해야 합니다. 輸出 대금의 결재通貨의 신축성 있는 변경과 先物換制度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朴基瀚 社長

현재 중소기업에 있어서 原価 구성의 65~80%를 原資材가 차지하고 있는 実情입니다. 따라

서 原資材 구입에 있어서 부담이 감소된다면 中小企業으로서는 한결 企業経営이 호전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원貨 切上이 企業経営에 悪材로 작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분담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즉 결재通貨를 US$貨 에서 원貨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内需市場에서의 중소기업의 위치는 극히 위협적인 요인을 안고 있어 販売 및 調達의 内需市場으로의 転換을 기하여야 하겠읍니다.

生産性 向上이란 측면에서 設備의 自動化 요구가 절실하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읍니다만 設備의 特性이나 文化의 差異 등으로 日本으로부터의 導入이 불가피할지라도 購入資金의 支援이 어려워 이 또한 개선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읍니다.

原資材 구입에 있어서도 일부 品目은 台湾의 製品이 国内보다도 저렴한 경우도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原資材 구입의 支援金融도 절실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원貨 切上의 対策에 있어서 政策的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業界内의 극소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大企業과 中小企業 사이에서 실마리를 풀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俞城在 博士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은 輸出 주도산업으로서 尖端科学技術과의 調和를 이루어 経済発展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원貨 切上으로 인하여 国内 業界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現状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日本과 台湾을 비롯한 NICs에도 파급되고 있어 결국은 世界市場의 再編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位置와 役割을 재정립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원貨 切上에 대한 国民的 차원의 위기의식의 결여 내지는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읍니다. 日本의 경우만 보더라도 官·民·業界 및 言論 등에서 위기의식을 造成하여 지혜롭게 대처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国民的 차원의 対策이 시급한 것입니다.

中共의 市場 개방도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面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低価格 製品의 海外市場에서의 경쟁은 가히 위협적이라 하겠읍니다. 따라서 中共 市場의 進入에 있어서도 国内 業界의 재평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朴正灝 副会長

먼저 企業의 現実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저희 韓国마벨은 輸出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원貨 切上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읍니다. 한국은행의 한 調査에서 製造業 중에서도 특히 電子産業의 税前標準収益率이 5%로 나타나고 있어 이미 電子業体의 이익은 환율 切上으로 잠식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인 파급영향과는 달리 各企業의 여건에 따라 원貨切上의 효과는 相異할 것입니다. 즉 저희 会社는 대략 730원 대를 損益分岐点으로 보고 있읍니다만 原資材 購入과 製品의 販売 등 企業의 노력에 따라 파급효과를 감소시킬 수는 있다고 봅니다.

현재 원貨 切上 뿐만 아니라 労使 문제, 原資材 価格의 앙등, 後発開途国의 추격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企業들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적 차원에서의 対策이 시급하다고 하겠읍니다.

日本과 台湾의 高換率 대응사례도 참고가 되기는 하지만 日本의 技術開発力, 高附加価値 製品과 台湾의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상의 차이 등으로 우리나라의 電子業界가 일본이나 대만의 방식을 뒤따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政府 및 機関에 대한 건의 및 요망사항으로는 첫째 원貨 切上 속도의 지연과 切上보다는 開放으로의 치중, 둘째 先物換制度의 弘報·認識 확대, 세째 금융상 외환 취급 수수료의 대폭적인 인하, 네째 중견 및 중소기업에 대한 市場 및 技術情報 보급 확대 등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